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주(州) 파슈툰 여성 정신건강 조사 보고서¹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85%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²
아프간 보건부 대변인 압둘라 파힘(Abdullah Fahim)

류리나³

¹ 본 조사는 향후 아프가니스탄의 전략적인 선교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² “AFGHANISTAN: Inadequate care for trauma victims”, IRIN News on the Web 13 February 2007, 21 July 2007
(<http://www.irinnews.org/Report.aspx?ReportId=70143>)

³ 본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 연구소(CIAS) 류리나 연구원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6개월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Kandahar) 주에서 실시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목 차

I. 서론

II. 연구의 제한 점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 방법
2. 측정도구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응답자 분석
2. 삶의 질 척도 (Quality of Life Interview)
3. 벡 우울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4. 사건 후 충격 척도 (Impact Event Scale-Revised)
5.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아프가니스탄은 20년이 넘는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고 이후 친소련 정권과 이에 반대하는 저항세력들 간의 내전이 시작되었다. 게릴라 조직 내 세력다툼은 또 다른 무력충돌을 야기하였다. 또한 무자헤딘⁴과 뒤이어 결성된 탈레반⁵에 의한 내전이 지속되었다. 끊임없이 이어진 아프간의 전쟁은 1996년부터 시작된 탈레반 집권 시기를 거쳐 2001년 미국 주도하의 전쟁으로 공식적인 막을 내리게 된다.

이렇듯 전쟁으로 점철된 아프가니스탄 근대사에서 가장 억압받고 학대 받는 계층은 여성이었다. 탈레반은 소수의 의료인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사회 활동과 8세 이상 소녀들의 교육을 금지하였다⁶. 여성들은 외출을 할 경우 반드시 남성과 함께 나가야 했는데 남자 없이 혼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발각되면 종교경찰들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⁷. 또한 여성들은 온몸을 가리는 차도르⁸나 부르카⁹를 착용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종교 경찰은 공개적으로 쇠붙이가 달린 채찍으로 여성들을 때렸다¹⁰. 메니큐어, 흰색구두, 밝은 옷 등이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 했다.

탈레반 정권이 전복된 2001년 이후 세계는 아프간 여성들의 권리, 지위,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휴먼 라이츠 와치(Human Rights Watch)의 보고에 의하면 탈레반이 물러간 이후에도 여전히 탈레반의 영향력이 잔재하고 있어 여전히 여성의 행동, 옷, 표현,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칙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과 학대가 행해지고 있다¹¹. 또한 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는 2005년까지도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강제 결혼, 조혼, 가정 폭력, 무장단체의 유괴 및 강간 등이 만연해있다고 보고한바 있다¹². 또한 이러한 학대, 특별히

⁴ 아프가니스탄 무장 게릴라 조직으로 아랍어로 '성스러운 이슬람 전사'를 뜻한다.

⁵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수니파(派) 무장 이슬람 정치조직으로 파쉬토어로 이슬람 신학생을 뜻한다.

⁶ Human Rights Watch, "Human Denied: Systematic Violation of Women's Rights in Afghanistan", October 2001, p7
(<http://www.hrw.org/reports/2001/afghan3/>)

⁷ Ibid., p. 13

⁸ 이슬람교도 여성이 타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쓰는 망토로 나라와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⁹ 차도르의 일종으로 몸 전체를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로 되어있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의상이다.

¹⁰ Ibid., p. 7

¹¹ Human Rights Watch, "Taking Cover: Women in Post-Taliban Afghanistan", May 2002, p2
(<http://hrw.org/backgrounder/wrd/afghan-women-2k2.htm>)

¹² Amnesty International, "Afghanistan: Women still under attack a systematic failure to protect", 30 May 2005

가족의 폭력으로 인한 여성들의 분신 자살이 계속되고 있다¹³.

탈레반 정권 붕괴 직후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의 모습 등 여성들의 자유로운 모습이 보고되었으나 이는 수도인 카불 등 개방된 몇 개 지역에서만 가능한 일이며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80%의 여성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¹⁴.

걸프 전쟁 참전 군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와 종군기자에 대한 조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지역에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측정하는 검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¹⁵. 여러 조사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거주자들의 정신병리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다(Kenneth E. Miller et al., 2006; Barbara Lopes Cardozo et al., 2005; Willem F. Scholte et al., 2004). 이러한 병리현상은 여성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 밀러(Kenneth E. Miller et al.)등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큰 심리적 고통과 심리사회적인 기능의 손상을 호소하고 있다¹⁶. 또한 윌렘(Willem F. Scholte et al.) 역시 아프가니스탄 낭가하르(Nangarhar)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불안 증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¹⁷ 및 우울 증상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¹⁸.

전쟁 직후 탈레반 당시 여성들의 짓밟히고 유린된 삶에 대해 세계는 여러 매체를 통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지만 여전히 아프간은 깊이 있고 실질적인 정보들이 부족한 지역이다¹⁹.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NGO와 전문가들이 정신건강 프로젝트와 조사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탈레반의 근거지이며 현재까지도 탈레반과 알카에다²⁰가 남아 활동하고 있는 남부지역, 특별히

〈<http://www.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110072005?open&of=ENG-AFG>〉

¹³ Ibid.

¹⁴ Carol J Riphenburg, "Post-Taliban Afghanistan: Changed Outlook for Women?", May/June, 2004

〈<http://proquest.umi.com/pqdweb?did=679239181&sid=9&Fmt=3&clientId=46822&PQT=309&VName=PQD>〉

¹⁵ Anthony Feinstein, Ph.D., M.D. John Owen, M.A. Nancy Blair, M.A. "A Hazardous Profession: War, Journalists, and Psychopathology": Committee on Gulf War and Health, "Gulf War and Health: Volume 4. Health Effects of Serving in the Gulf War (2006)" 2006 September 12

¹⁶ Kenneth E. Miller et al., "The Afghan Symptom Checklist: A culturally Grounded Approach to Mental Health Assessment in a Conflict Zon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76, No. 4, (2006): p. 427

¹⁷ 충격 후 스트레스장애, 외상성 스트레스장애라고도 한다. 전쟁,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강간, 자동차·비행기·기차 등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전신적 질병이다

¹⁸ Willem F. Scholte et al., "Mental Health Symptoms Following War and Repression in Eastern Afghanistan", Th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92, No. 5, (2004): p589 〈<http://jama.ama-assn.org/cgi/content/full/292/5/585>〉

¹⁹ Carol J Riphenburg, "Post-Taliban Afghanistan: Changed Outlook for Women?", May/June, 2004

〈<http://proquest.umi.com/pqdweb?did=679239181&sid=9&Fmt=3&clientId=46822&PQT=309&VName=PQD>〉

²⁰ 1979년 소련(현 러시아)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을 때 이람 의용군으로 참전한 오사마 빈 라덴이 결성한 국제적인 테러 지원조직이다.

칸다하르(Kandahar)주(州)²¹에 관한 조사 자료는 매우 미비하다. 특별히 여성 정신건강 실태 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폭력, 조혼, 명예살인 등 아프간의 칸다하르 여성들의 인권과 관련된 실태는 엠네스티 또는 휴먼라이츠와치 등을 통해 보고가 되고 있으나 인권유린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조사되어지지 않고 있다.

칸다하르주는 아프간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파슈툰(Pashtun)²² 족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²³. 또한 칸다하르는 과거 탈레반 세력의 근거지이며 탈레반 정권하에서 여성들이 극심한 학대와 억압을 받은 지역이다. 탈레반 정권은 막을 내렸으나 칸다하르 여성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활동중인 탈레반에 대한 두려움을 벗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칸다하르 여성부 지도자인²⁴ 아마잔(Safiye Amajan)이 저격 당해 숨진 사건²⁵은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과 억압, 위협이 만연해 있음을 나타내는 단편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인권이 유린되고 있으며 높은 정신병리 현상을 보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을 위해서는 각 지역 및 종족 특성에 바탕을 둔 적합한 개입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프간 칸다하르 여성들은 정신 병리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나 그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학계와 이들을 돕기 원하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조사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파슈툰 여성들의 정신 건강 상태 자료를 생산하여 이를 학계와 아프간 관심자들에게 알릴 뿐 아니라 조사 내용을 통해 그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지원방법을 찾고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칸다하르 여성들의 정신 건강 상태의 파악을 위해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의 깊이,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정도를 측정하는 서베이를 실시하였고 그들의 정서적 지원 요소를 찾기 위해 기분 개선 요인 및 슬픔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²¹ 아프가니스탄 남단에 위치한 도시로 탈레반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다.

²²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종족으로 수니파 이슬람교도들이다. 탈레반의 주축을 이룬다.

²³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 June 2007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af.html>>

²⁴ The head of women's affairs in Kandahar province

²⁵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7 â Afghanistan <<http://www.amnesty.org/>>

II. 연구의 제한점

병원, 학교, 그 외 단체들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식의 편의표집²⁶을 사용했다는 데에 표집의 한계가 있다. 이는 아직까지 여성들의 외부 출입이 극히 제한되며 친인척 관계가 아닌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쉽게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인한다. 특히나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칸다하르 지역은 외국인과의 관계를 가질 경우 탈레반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만연하여 무작위 추출을 통한 가정 방문 인터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조사에서 이루어진 가정방문은 조사자와의 개인적 관계 형성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표집의 한계로 인해 본 조사의 내용이 칸다하르 여성들의 실제 삶보다 양호하게 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이나 아버지 등 집안의 가장에게 바깥 출입을 허락 받은 사람들이며 이는 여성에 대한 가정의 억압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조사는 125 명의 여성을 직접 만나 인터뷰 하였으며 표집 대상의 연령, 학력, 생활수준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다양한 계층 및 다양한 종류의 여성들을 접촉하고 조사하였다. 12 세에 돈을 받는 대가로 시집을 가서 남편의 학대로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극도의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여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정에서 자라나 7 년의 의과대학 과정을 마치기까지 학업 하고 자유연애를 하는 여성까지 본 보고서에 그려진 여성들의 삶의 다양성을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가지는 본 조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도구들은 이미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는 것이며 본 조사에서 도구 사용의 목적은 병리에 대한 진단에 있지 않고 정신 병리적 증상에 대한 기술에 있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²⁶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이거나 모집단의 구성요소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판단될 때 표본 선정의 편리성에 기준을 두고 조사자 임의대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 방법

본 조사는 16~60 세 피슈툰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고 칸다하르주에 소재한 3 개 학교, 2 개 병원 및 그 외 다수의 NGO 사무실과 가정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는 현재 난민 유동인구가 높아 정확하게 측정된 인구학적 통계 자료가 없고 칸다하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의 부재로 표본의 크기가 계산되어지지 않았으며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식을 사용 하였다.

본 조사는 구조화된 면접 서베이를 통한 양적 조사와 비구조화 면접을 통한 질적 조사를 병행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양적 조사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치화된 결과만으로 연구대상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심층 면접을 통해 양적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양적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면접 서베이를 실시하면서 추가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는 1 인 45 분에서 최대 2 시간 30 분이 소요 되었고 구두 동의를 받은 후 실시되었다.

2006 년 10 월부터 현장에서 서베이 문항 수정 및 예비조사 실시 등 준비기간을 갖고 2006 년 12 월부터 2007 년 3 월까지 약 4 개월 간 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6 개월간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정신건강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많은 연구에 사용된바 있는 네 가지 척도와 두 가지 추가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삶의 질 척도 (Quality of Life Interview)’ 는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통계와 경제 상황, 대인관계, 안전, 건강, 종교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느낌과 만족도를 스스로 평가하는 형식으로 측정하며 대부분의 문항에서 1~7점으로 응답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²⁷가 사용되었다.

백 우울 척도(BDI Beck Depression Inventory)는 우울, 불안, 자살 경향성 측정을 통하여 우울감의 깊이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표준화 검사로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3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²⁸.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 .87로 신뢰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성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21번 문항은 번역가, 역 번역가, 최종 수정자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프간 문화상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으로 판단되어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삭제하여 총 20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척도로는 사건 후 충격 척도(IES-R Impact of Event Scale-Revised)를 사용하였다. 사건 후 충격 척도(IES-R)은 외상적 사건으로 인해 지난 7일간 회피, 회상 침입, 과각성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정도를 측정하며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0~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요구되며²⁹ 본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는 .99로 매우 높은 신뢰수준을 보여준다.

정서적 지원요소 조사를 위한 추가 질문은 향후 아프간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 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두 질문은 각각 “당신을 슬프거나 화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와 “당신의 마음 상태를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이다.

모든 질문지는 영어, 파쉬토³⁰,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의 한동대학교에 재학중인 아프간인 대학생이 초번역을 하였다. 이후 아프간 현지에서 파쉬토 번역본을 다시 영어로 역번역하여(Back-translation) 번역 상태를 점검하였고 영어, 한국어, 파쉬토를 사용하는 아프간에 3년 거주한 한국인이 1차 수정, 칸다하르 NGO에 소속된 현지인이 2차 최종 수정을 하였다. 이후 현지 칸다하르 지역 NGO에서 일하는 20세의 파슈툰 여성을 통역으로 고용해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ing)를 실시하여 서베이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단어의 정확한 사용, 모호한 문장, 응답 가능여부, 문화상의 적합성 등을 질문, 검토하였으며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문항과 문화적으로 부적합한 문항, 대답하기 곤란한 문항 등에 대하여 인지조사(Cognitive testing)를 통해 수정, 삭제 및 보완하였다.

²⁷ 조사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측정방법이다. 태도나 가치를 측정하는데 널리 쓰인다.

²⁸ Wikipedia, Beck Depression Inventory, 21 July 2007

<http://en.wikipedia.org/wiki/Beck_Depression_Inventory#Two-factor_approach_to_depression>

²⁹ Victims' Web, Impact of Event Scale - Revised (IES-R), 21 July 2007

<<http://www.swin.edu.au/victims/resources/assessment/ptsd/ies-r.html>>

³⁰ 다리어와 함께 사용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공용어로 전체 인구의 35%가 사용한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보고서는 서베이 결과의 빈도분석만을 다루고 있다³¹. 각 척도들의 평균, 분포 등에 대한 기술과 함께 질적 조사를 통해 얻어진 조사 대상자들의 사례 소개를 통하여 아프간 칸다하르 파슈툰 여성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있다. 양적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의 인터뷰에 응한 모든 여성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는 그들의 이름과 인적 사항이 공개되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1. 응답자 분석

〈표 IV-1〉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총 응답자는 125명으로 16~60세의 파슈툰 여성이며 63%가 기혼 여성이다. 기혼여성 중 53%가 법적 혼인 연령인 16세 이하의 나이로 결혼하였고 최소 혼인 연령은 7세로 보고되었다. 조혼은 현재 아프간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며 교육 및 사회활동의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문제이다.

- 사례1: 카르마(Karma, 22), “나는 10년 전 12세에 결혼을 하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어머니께서는 다른 남자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삼촌에게 맡겨졌다. 삼촌은 지침금을 받고 나를 지금의 남편(나이를 모름)과 결혼을 시켰다. 남편은 결혼 직후 이란으로 일을 하러 떠났고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야 돌아왔다. 그는 오자마자 두 번째를 맞아 들였다. 우리는 가난해서 방이 한 칸인 집에서 살고 있으며 한 방에서 두 번째 부인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³².

- 사례2: 라지아(Ragia, 55), “나는 7세에 결혼을 했다. 남편은 당시 15세이었고 아버지가 돈과 나를 바꾸었다. 나는 지금까지 총 20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10명은 죽었고 10명만 살아있다”³³.

³¹ 각 측정도구와 문항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후속논문에 대한 정보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 연구소(CIAS)에서 얻을 수 있다.

³²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January 2007

³³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February 2007

〈표 IV-1. 응답자의 인구학적 통계〉

분류		빈도	퍼센트(%)
연령 (n=125)	16~25	42	33.6
	26~35	28	22.4
	36~45	41	32.8
	≥46	14	11.2
결혼상태 (n=123)	기혼	78	63.4
	사별	12	9.8
	미혼	33	26.8
결혼연령 (n=89)	7~15	35	39.3
	16~25	49	55.1
	26~35	5	5.6
교육 (n=125)	무	74	59.2
	초등학교	14	11.2
	중학교	9	7.2
	고등학교	16	12.8
	대학교이상	12	9.6
주거상태 (n=125)	자가	69	55.2
	친척집	10	8
	임대	39	31.2
	기타	7	5.6
직업 (n=125)	유	27	21.6
	무	98	78.4

응답자 중 78%가 직업이 없으며 22%만이 급여를 받고 일하는 여성이다. 교육에 있어서는 59%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이 9.8%로 학교 및 NGO

사무실 등의 표집 장소의 특성상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³⁴. 하지만 아직까지 칸다하르에는 언제 다시 탈레반이 정권을 잡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만연해 있으며 이에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 활동이 많이 제한된 상황이다. 여성들은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전쟁 후에도 다수의 여성들이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 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

- 사례3: 29세인 하피파(Hapipa)는 전쟁으로 6학년까지 학업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피파는 동생에게 절대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결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에서 가장 안 좋은 점이 무엇이나고 묻자 공부를 계속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결혼을 하기 전인 9년 전 3개월의 수련을 받고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놓는 일을 했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영어와 아랍어 등의 공부를 계속 하고 싶고 밖에서 일도 하고 싶지만 아무도 허락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원을 묻자 소원은 많다고 그 중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원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모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³⁵.

칸다하르의 한 NGO에서는 교육 시기를 놓친 가난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파쉬토, 산수, 이슬람 등을 가르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시간 동안 그들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 센터의 디렉터는 센터에 파슈툰 여성이 적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파슈툰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들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3~5번씩 가정들을 방문해야 했다고 말했다³⁶. 매우 힘든 작업이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 이들도 있다.

- 사례4: 주비다(Jubida)는 19세의 소녀이다. 아버지는 건축 노동자로 가난한 집안 살림에 공부를 할 수 없었지만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 너무 좋다고 예전엔 자살 생각을 했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³⁷.

2. 삶의 질 척도(Quality of Life Interview)

³⁴ Willem F. Scholte et al., "Mental Health Symptoms Following War and Repression in Eastern Afghanistan", Th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92, No. 5, (2004): 588 < <http://jama.ama-assn.org/cgi/content/full/292/5/585> >

³⁵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February 2007

³⁶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with the Director of Afghan Women Council in Kandahar, December 2006

³⁷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December 2006

삶의 질 척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보고되었다. 이는 전쟁과 억압으로 인해 여성들이 삶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느낄 것이라는 예측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추론 가능한 몇 가지 원인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표본 추출이 확률표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표본 가운데 개방적인 가정에 속한 여성, 교육의 혜택을 받은 여성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간 전체 여성의 식자(識字)율이 12.6%³⁸인데 반해 본 조사 표본의 40.8%가 초등교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대적 만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서베이 방식으로 인한 것이다. 높은 문맹률로 인해 조사자가 질문을 소리 내어 읽어주고 조사 대상자는 구두로 응답하며 다시 조사자가 기록하는 방식은 심리적으로 ‘익명성’의 결여를 느끼게 하여 사회적 압력을 야기시켰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을 묻는 문항에서 구체적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최고점수 7점에서 응답자 전체 평균 4.81로 20%가 강한 불만족(unhappy, terrible)을, 51%가 강한 만족(pleased, delight)을 보였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느낌을 묻는 문항은 평균이 각각 5.24와 5.28로 60% 가량의 여성이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응답하고 강한 부정이 20%미만이었던 데 반해 휴식의 양에 있어서는 44%가 매우 만족을, 21%가 강한 불만족을 표했으며 평균은 4.67이다. 아래 사례는 상대적으로 삶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다.

• 사례5: 41세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호마이라(Homira)는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듣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재 남편과 학교를 다니는 20세 아들과 12살 어린 아들과 살고 있고 24세 딸은 결혼을 했다. 몇 해 전 남편은 폭발물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손으로 잡았다가 그것이 다시 폭발해 왼쪽 팔을 잃었고 1년 전에는 큰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그녀는 일을 하러 나오는 것이 두렵지만 아이들은 계속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때를 쓰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던 큰 아들이 죽어 자신이 일터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친척들도 거의 도와주지 않았고 혼자 일을 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여자가 일을 하는 것을 탈레반이 금지했었고 지금도 위협해서 일을 하러 나오는 것이

³⁸ Central Intelligence Agency, 09 October 2007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af.html>>

무섭다고 한다. 현재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는 많이 위험해서 1개월 전만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죽어 있을 때가 꽤 많았다고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문제가 많다. 집에 문이 없어 도둑이 들까 봐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그나마 6개월 전엔 집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지냈는데 그래도 한 친척이 돈을 줘서 방 2개짜리의 집을 얻었지만 가구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춥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죽은 아들을 생각만하면 너무 슬프다고, 아들을 잊을 수 없고 매일 밤 잠을 못 잔다고 말했다. 인터뷰 중에도 아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물을 보였다. 혼자 시간이 나면 늘 울게 되어서 이웃집이나 딸네 집에 가곤 한다고 한다. 그리고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힘들 때면 집에도 찾아 오고 함께 있어줘서 좋다고 한다³⁹.

• 사례6: 25세인 토비는 현재의 고통스런 삶을 토로하였는데 BDI에서 총점 49점으로 심각한 우울을 보고하였다. “나는 13살에 돈을 많이 받고 유목민과 결혼을 했다. 남편은 헤시시(hashish)와 이편을 했었다. 6년 전 남편이 죽었고 나는 2명의 아들(9세, 6세)과 한 명의 딸(13세)과 함께 친정에서 살고 있다. 다시 결혼을 하고 싶지만 남편의 형이 허락을 안 해서 못하고 있다. 그는 내가 결혼을 하면 오빠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그래서 오빠는 내게 결혼하지 말고 그냥 자기와 살자고 했고 지금 나는 오빠와 살고 있다. 남편의 형은 재혼을 하고 싶으면 자기네 집안 사람과 하라고 했다. 그것은 유목민인 그들의 전통이다. 다시 그들에게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 살기 때문에 몰래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도 없다. 딸은 학교에 가고 싶어한다. 나도 너무나 딸을 학교에 보내고 싶지만 집에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 나는 밖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시집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 모두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재봉과 같은 소일거리조차도 할 수 없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 정부에 가서 호소하고 싶지만 엄마는 내가 그렇게 할 경우 시집 식구들이 오빠를 죽일 것이라고 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죽고 싶다고, 정부에 가서 호소하는 걸 허락해주지 않으면 몸에 기름 붓고 불을 붙여서 자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런 삶이 너무 싫다.

오빠와 엄마가 나를 자주 때린다. 나는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아 매일 싸우는데 오빠는 내가 다른 곳에 가고 싶다고 하거나 결혼하고 싶다고 하거나, 딸을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등의 내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 때린다. 보이는 것 아무것으로나 때리고 한 달에 한번, 때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맞는다. 지난번에는 맞아서 손이 부러졌었다. 나는 늘 화가 나고 뛰쳐나가고 싶고 밤에 잠을 못 이룬다.”

³⁹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November 2006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재혼하는 것과 밖에서 일하는 것, 딸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아프간 인권 자치 위원회(Afghan Independent Human Right Commission)를 방문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토바의 이야기를 들은 현지 여자 직원은 자신들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지만 정부에서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러한 상황은 아프간의 문화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일일이 보호를 해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토바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설명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토바를 설득했다. 그러자 그녀는 딸은 약혼시키고 아들은 죽은 남편의 집으로 보내고 자기는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직원의 말에 토바는 남편의 형을 찾아가서 자기는 결혼을 할 것이라고 허락을 안 할 거면 매달 아이들과 생활 할 수 있는 생계비를 보내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⁴⁰.

• 사례7: 35세 샤키라(Shakira)는 1년 전 가난으로 헬만 주에서 칸다하르로 이사 왔고 인터뷰 당시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7명의 아이들이 약과 음식이 없어 죽었다. 2명의 아들이 남았었는데 그 중 한 아들이 얼마 전 구걸을 하러 가다가 차에 치어서 죽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음식을 살 돈도 없다. 삶에 기쁨이 전혀 없다. 그저 죽고 싶다. 이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의사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다. 나는 구걸을 하고 사는데 칸다하르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두렵고 어디서 일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일을 하고 싶지만 찾을 수 없고 친척들도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고 그저 구걸을 할 수밖에 없다⁴¹.”

• 사례8: 45세 아미라(Amira)는 그녀는 결혼 후 1년 뒤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남편을 잃게 되었다. 그 후 남의 집에서 빨래, 청소 등을 해서 돈을 벌며 한 명의 아들과 생계를 유지했다. 3년 후 남편의 형제와 재혼을 했으나 탈레반이 투하한 폭탄으로 두 번째 남편도 목숨을 잃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친구가 빌려준 집에서 살고 있으며 몸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지만 돈이 없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하러 가지 못했는데 주인은 일을 하러 나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그 날은 밥을 먹지 못한 채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잠을 잤다⁴².

⁴⁰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February 2007

⁴¹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January 2007

⁴²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January 2007

(2) 건강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평균이 3.71이며 38%가 강한 불만족을, 29%가 강한 만족감을 표했다. 신체적인 건강 상태는 각각 33%, 30%의 응답률이 나왔고 평균은 3.88이다. 정서적 건강에서는 각각 19%, 44%, 평균 4.63으로 나타났다. 건강 영역은 다른 영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서적 건강에 관하여는 여타 영역들과 같이 강한 만족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히 신체적인 건강에 대하여 강한 불만족을 보이고 있다.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염려하는 여성이 많았다. 하지만 인터뷰를 실시한 주요 장소 중에 병원이 있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 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부에 관해 24%가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39%는 매우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4.34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 사례9: 45세인 팔로샤(Palosha)는 아들이 3세에 병으로 죽은 사건과 8년 전 자신이 겪었던 교통사고로 인한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정신이 매우 약해진 상태이며 아주 사소한 것도 다 기억이 나고 아주 작은 일도 밤새 걱정을 하고 잠을 별로 못 잔다고 말했다. “교통사고가 있었던 8년 전부터 그래왔다. 나는 5분 자다가는 깨어나서 생각을 하다가 3분 정도 다시 잠을 자고 다시 깨어나 또 생각을 하며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수면제를 먹으면 내성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약도 먹지 못하고 있다. 바쁠 땐 괜찮은데 잘 때 모든 것이 생각 난다. 낮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밤에 아주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진다. 나는 폭발 소리를 들으면 머리와 얼굴이 뜨거워진다. 마치 얼굴에 스토브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눈으로 보려고 한다⁴³.”

• 사례10: 세미나(Semina)는 35세 여성으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오빠가 그녀를 길렀고 14세에 시집을 갔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일을 잘 못했는데 음식을 제대로 못 하거나 일을 잘못하면 시어머니, 남편, 남편의 형제들까지 다 자신을 때렸는데 특별히 머리를 많이 때렸다고 한다. 남편의 형은 자신을 여러 번 강간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한다. 그녀는 이후 5명의 아이를 유산했고 건강에 대한 질문에서 앞이 잘 안 보이고 매일 머리가 아파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온 몸이 안 좋다고 말했으나 당시 그녀가 받는 치료는 물리치료뿐이었다. 현재는 시집 식구들과 떨어져 살고 있어 남편도 때리지 않고 예전만큼 많이 울지는 않지만 시집에 있을 때 너무나

⁴³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February 2007

힘들었던 기억들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말했다⁴⁴.

• 사례11: 40세의 루나(Runa)는 6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는 여성으로 자신은 늘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온몸이 아프고 자신에게 정신적이 문제도 있다고 했다. 작은 소식만 들어도 울게 되는데 컨트롤이 안되고 쉽게 화가 나며 한밤 중에 깨어나서는 2~3시간 있다가 다시 잠에 든다고 했다.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⁴⁵.

• 사례12: 사디카(Sadika)는 33세로 얼마 전 폭탄이 터졌을 때 목을 다쳤는데 돈이 없어서 의사한테 못 갔다고 했다. “돈이 없어서 지난해 3명의 아이가 의사한테도 못 가보고 죽었다. 지난 폭발 후 심장이 뛰어서 친척에게 30아프가니(약 \$0.6)를 빌려서 병원에 갔다. 흉부에 통증이 있던 것은 치료를 받아서 나았는데 아직도 복부가 아프지만 돈이 없어서 의사에게 못 가고 있다⁴⁶.”

(3) 대인관계

대인관계 영역에서 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에 대하여 10%정도만이 매우 부족함을 표현했고 60%는 강한 만족을 보고했으며 현재 누리고 있는 우정의 정도에 대해서는 12%만이 강한 불만족으로, 70%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각각 평균 5.36과 5.72로 높은 점수를 보인다. 이들의 대인 관계는 가족, 친지 및 소수의 친구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여성들이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4) 안전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지난 한해 동안 폭력적, 비폭력적 범죄의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인의 안전에 대해 13%가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68%가 매우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살고 있는 동네의 안전여부에 관하여는 7%만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74%는 안전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었다. 평균 5.50, 5.86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다. 그렇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이들도 많은데 아래에 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⁴⁴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March 2007

⁴⁵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March 2007

⁴⁶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December 2006

• 사례13: 17세 자르호나(Zarghona)는 개인적인 신변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그녀는 집에서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열어 교육시기를 놓친 나이 많은 여성들을 교육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 처음엔 그냥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다가 교육부에 가서 허가를 받고 학교를 시작했다. 그런데 5달 전 탈레반 3명이 총을 가지고 밤에 집에 찾아와서 학교 문을 닫으라고 했다. 아빠가 집에 있었지만 탈레반은 남자만 죽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한테 집안에 있으라고 하고 나가서 그들을 만나 그냥 이슬람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문을 닫지 않았고 요즘은 집 근처에 군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어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한다⁴⁷.

• 사례14: 40세 우르나(Urna)는 1년 전 교육부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열리는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당시 남편과 아이들은 칸다하르에 남아 있었는데 우르나가 미국에 있는 동안 탈레반이 남편에게 “아내가 돌아오면 그녀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도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다. 그 일로 인해 남편이 심장발작을 일으켜 목숨을 잃었다. 그녀는 안전에 대한 질문에 매우 부정적인 답으로 일관했다⁴⁸.

• 사례15: 45세 자비다(Jabida)는 자신과 딸이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한다. 여자가 일 하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래서 일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여기(칸다하르)서는 모두가 서로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 무서워한다고 한다. 칸다하르의 상황에 대해 2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좋아서 부르카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마치 카불과 같았고 2006년부터 폭발 사건도 많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여기에 경찰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며 이곳의 경찰은 교육도 못 받았으며 겨우 3~4개월의 훈련만 받고 유니폼만 입은 사람이라며 비판했다. 이곳에는 경찰들이 매일 차를 검문하면서 운전자를 때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등 제대로 된 경찰이 하나도 없다며 자기들은 경찰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⁴⁹.

(5) 폭력

지난 6개월 간 남편, 가족 등으로부터 맞은 적인 있냐는 질문에는 16명(13%)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많은 여성이 남편에게 맞고 있다는 현지인들의 일반적인 보고와 일치하지

⁴⁷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January 2007

⁴⁸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December 2006

⁴⁹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February 2007

않는 것으로 추후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남편이나 시집 식구들에게 맞다고 얘기한 여성들의 말에 의하면 가족들은 손이나 전선, 돌 심지어는 칼까지 사용해 그들을 학대하고 있으며 이들 여성들은 하나같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도망도 가지 않으며 그저 앉아서 맞고 울뿐이라고 얘기했다. 폭력은 남편뿐 아니라 시집 식구들에 의한 경우도 많은데 그 중 분가를 해서 나온 경우 분가 후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더 이상 남편이 폭력을 행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 사례16: 청소부로 일하는 36세 파르시다(Farsida)는 남편에게 매일 맞다고 한다. “남편이 전선으로 머리를 매일 때려서 두통이 있다. 남편은 마리화나를 하면 괜찮아지고 약을 안 쓰면 그렇게 때린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건 아프간에서 하나의 법칙이다.” 그녀는 얼마 후 공황 상태에 빠진 한 여성을 보면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자기도 늘 그렇게 된다고 말하였다⁵⁰.

- 사례17: 자르미나(Zarmina)는 40세 여성으로 낮에는 NGO에서 관리직 일을 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병원에서 조산사로 일한다. 3명의 딸과 4명의 아들을 둔 그녀의 남편은 현재 직업이 없고 그들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집에 살고 있다. 그녀의 20세 딸은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집안 일을 할 수 없으며 현재 인도에 치료를 받으러 가 있다. “남편은 딸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게 했다. 하지만 나는 조산사로 일하기 때문에 딸의 상태를 알았다. 그래서 돈을 빌려 딸을 인도로 보낸 것이다. 의사가 딸이 2년 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딸이 일을 안 한다는 이유와 손님들이 왔을 때 일을 완벽하게 못한다는 이유로 나를 때렸다. 그는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돌, 항아리, 컵 등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것이나 던진다. 맞을 때면 그저 우는데 그러면 남편이 울지 말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 혼자 운다.” 자르미나는 여는 여자들처럼 남편이 때릴 때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맞고 있는다고 말했다. 6개월 전엔 남편에게 맞아서 온몸이 멍들었다고 하며 짙은 남색 가방을 가리키며 온몸이 그 색깔과 같았다고 표현했다⁵¹.

- 사례18: 아피파(Afifa, 35), “남편은 해시시(hashish)를 한다. 해시시를 할 때면 막대기나 돌 등 보이는 것이면 아무것으로나 때린다. 칼로도 때린다(머리에 칼에 맞아 생긴 상처를 보여줬다). 남편은 늘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고 한다.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도 않는다. 남편은 미쳤다. 나는 삶이 싫다⁵².” 50세인 말리카(Malika)의 남편 역시

⁵⁰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November 2006

⁵¹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December 2006

⁵²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January 2007

해시시를 했는데 친절하다가도 해시시를 할때면 그렇게 때렸다. 그는 전쟁에서 죽었는데 남편이 살았을 때 매일 자신을 때려 손가락이나 다리가 부러졌었다고 말했다. 큰 돌로 때리기도 했는데 아들의 발을 부러뜨린 적도 있다고 한다⁵³.

• 사례19: 무스칸(Muskan)은 20세 여성으로 파슈툰족이지만 유목민과 3년 전 결혼을 했다. “아버지가 나를 그곳에 시집 보냈다. 아이는 3명이 있다. 시집 식구들은 집안 일이며 양치는 일까지 모든 일을 나에게 시킨다. 나에게는 여유시간이 전혀 없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시집식구들은 내가 입는 옷, 일하는 방식 등이 자신들과 다르다고 매일 나를 때린다. 남편과 남편의 형, 남편 형의 아내까지 전부 나를 때린다. 남편은 나이가 많다. 그는 늘 나보고 자신이 내 할아버지뻘이라고 했다. 나이는 정확히 모른다. 남편은 처음엔 나에게 친절했지만 그의 가족들이 남편에게 내가 집안일도 안 돌보고 아주 나쁘다고 하자 때리기 시작했다. 시집 식구들이 때릴 때면 남편도 같이 때린다.” 힘든 얘기를 할 때도 자주 웃곤 하는 다른 여성들과 달리 무스칸은 인터뷰 내내 단 한번도 웃지 않았다⁵⁴.

• 사례20: 나스린(Nasrin)은 28세로 울면서 자신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 “나는 14세에 처음 결혼을 했는데 3개월 만에 무자헤딘에 의해 남편이 죽었다. 남편은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너무 힘들었고 나는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병어리같이 되었다. 남편이 죽은 후 재혼 전까지 친절에서 살았다. 8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22세에 재혼을 했다. 두 번째 남편의 가족들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었다. 내게 먹을 것도 안 줘서 몰래 먹을 것을 가져다 급히 먹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내가 일도 잘 안하고 나쁘다고 말했고 그 때문에 남편이 나를 심하게 때렸다. 나는 다시 병어리처럼 말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사가 나에게 바쁘게 생활하라고 했고 지금은 간호학교에 다니면서 많이 나아졌다. 지금은 시집에서 나와 따로 살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이제는 남편이 때리지 않는다. 이제는 남편이 화를 내면 진정시키고 나는 당신의 아내라고, 어떤 문제든지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설득한다⁵⁵.”

(6) 종교

종교에 대한 신념의 정도와 종교적 행위 실천 정도를 묻는 문항 역시 7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주목 할만한 것은 모든 항목의 평균이 6.8이상이며 ‘항상 그렇다’ 라고 응답한

⁵³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January 2007

⁵⁴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January 2007

⁵⁵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January 2007

여성이 문항별로 88~99%에 이른다는 것이다. 칸다하르 파슈툰 여성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는 결과이다. 60세 여성인 굴랄리(Gulaly)는 당뇨로 몸이 안 좋고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한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인터뷰 내내 알라가 모든 것을 쫓으며 자신은 알라를 믿고 알라 안에 있다고 수시로 이야기를 했다. 그녀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이 알라에게서 온 것이며 알라만이 알고 있고 알라에게 달려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 이를 통해 종교적 행위뿐 아니라 이들의 생각에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사례21: BDI 총점 32점을 보인 하지자(Haziza)는 40세이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그저 알라에게 속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아버지와 남동생과 살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고모와 여동생도 함께 살고 있다. 삶에 대한 느낌을 묻자 울기 시작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아프간 여자, 아프간 여자’ 라고 말하는데 아프간 여자들이 힘들게 살고 어려움이 많은 건 다 알고 있지 않냐고 왜 물어보냐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사람, 여자뿐 아니라 아프간의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갖고 있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알라에게 속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하지자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가족이 여럿 죽었고 경제적인 문제도 많다고 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은 늘 알라를 생각하고 기억한다고 말했다⁵⁶.

(7) 기타

그 외에 집,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71%가 ‘우수’ 또는 ‘매우 우수’ 라고 응답하였고 29%만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제적으로는 의식주와 의료를 위한 돈이 충분한가에 대하여 63명(50.4%)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62명(49.6%)가 불충분하다고 대답하였다.

3. 벡 우울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표 IV-2〉는 BDI 총점 에 따른 분류이다. 우울감의 깊이를 측정하는 본 척도의 응답자 총점 평균은 17점이다. 결과에 따르면 31.2%가 가벼운 우울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4.8%의 응답자가 중한 우울을, 15.2%가 심한 우울을 보고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BDI 문항 중 성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21번 문항을 문화적 부적합성으로 삭제하였다. 총점 원점수인 63점보다 낮은 60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유의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⁵⁶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February 2007

원본을 사용할 경우 더 깊은 우울감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항별 평균에서는 자기 비판(1.23), 수면의 어려움(1.56), 몸무게 감소(1.77)와 관련한 내용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V-2. BDI 총점〉

총점평균	빈도(n=125)	퍼센트(%)
0~9(우울하지 않은 상태)	36	28.8
10~16(가벼운 우울 상태)	39	31.2
17~29(중간 우울 상태)	31	24.8
30~63(심한 우울 상태)	19	15.2

• 사례22: 앞서 소개한 바 있는 파르시다(Farsida)는 2명의 아들과 네 명의 딸이 있다. “남편이 마리카나를 하는데 일은 전혀 하지 않아서 내가 일을 해야 한다. 아이들은 모두 아프고 치료할 돈은 없고 집값은 비싸다. 나에게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월급은 3,300아프가니57(약 \$66)이고 집값은 2,500아프가니(약 \$50)이니 집값을 주고 나면 800(약 \$16)밖에 안 남는다. 큰 아들이 12살이라 일을 할 수 없고 돈을 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무 살기 힘들다. 집값도 많이 밀리고 동료들에게 돈을 많이 빌린다. 월급을 받아도 빚을 갚고 나면 또 돈이 없어 다시 돈을 빌린다. 첫째 딸(16세)은 아이를 낳고 남편과 파키스탄으로 가서 살고 있고 둘째 딸(13세)은 결혼을 했다가 3달 만에 남편이 죽어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 나의 삶은 결혼 후 지금까지 늘 괴로웠다. 직장에서는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 가기만 하면 너무 슬프다. 나는 예쁘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결혼 전에는 잠을 잘 잤었는데 결혼 후부터 잘 못 자게 됐고 지금은 아예 못 잔다⁵⁸.”

• 사례23: 19세인 파티마(Fatema)는 중학교 수학선생이다. 낮엔 학교에서 가르치고 오후엔 공부하고 집에 가면 집안일을 하며 매우 바쁜 삶을 보낸다. 그녀는 남은 시간에 시를 쓴다고 했는데 시는 대부분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많은 사진과 시들로 꾸며놓은 일기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파티마는 인터뷰 가운데 자기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자신의 감정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공부를 계속해서

⁵⁷ 아프가니스탄의 화폐 단위

⁵⁸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November 2006

졸업을 하고 싶은데 가족들은 공부를 그만두고 결혼을 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며 알게 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 하지만 그가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파티마는 너무 슬펐고 극도로 우울했으며 병을 앓게 되었다. 결국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는 자기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또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파티마의 부모님들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파티마에게 청혼을 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고 있다. 여자가 누군가와 결혼하겠다고 먼저 이야기 하면 아버지에게 뺨을 맞는 문화 속에서⁵⁹ 파티마는 이 얘기를 부모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또 현재 그의 아내를 생각하면 그녀의 삶을 망치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녀의 BDI 총점은 33점이었으며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고 응답했다⁶⁰.

• 사례24: 총점 36점을 보인 라야카(Layaka)는 현재 35세로 28세에 결혼했고 현재 4명의 아이가 있다. “나는 5년 전 심각한 병을 앓았었다.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까지 있다. 나는 쉽게 화가 나고 우울해진다. 남편은 택시를 운전하거나 건설 노동을 한다. 택시를 하루 몰고 택시 주인에게 500아프가니(약 \$10)를 주고 나면 하루에 100~200아프가니(약 \$2~4) 정도 벌거나 돈을 하나도 못 가져올 때도 있다. 남편은 매우 가난했다. 그래서 22세에 약혼했지만 지참금을 준비하지 못해 6년을 기다리다가 결혼했다. 남편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전화기조차도 사용할 줄 모르고 글도 쓸 줄 모른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우울해진다. 지금은 젊으니까(남편 35세) 노동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지만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재봉 일을 하는데 너무 괴롭다. 삶에 쉼이 전혀 없고 누우면 아픈 것과 돈 문제 등 걱정뿐이다⁶¹.”

• 사례25: 파르와나(Parwana)는 22세의 젊은 여성으로 BDI 총점 32점을 보였다. 그녀는 12년 전 폭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지금까지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남동생은 귀머거리이고 병어리이다. 집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역으로 정부가 땅을 제공하고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라에서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파르와나는 일을 해서 본인의 약을 살 돈을 마련하는데 구슬로 천에 수를 놓는 수공예품을 만드는 일을 한다. 한 개 만드는데 20~30일 정도 걸리고 70~80아프가니(약 \$1.4~1.6)를 받는다. 그녀는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은 가지 못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병원만 가고

⁵⁹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December 2006

⁶⁰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December 2006

⁶¹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March 2007

있으며 그나마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잘 못 간다고 말했다.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까 봐 무섭다고 말하기도 했다⁶².

• 사례26: 나피사(Nafisa)는 45세로 BDI에서 총점 33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남편과의 문제가 많다. 우리는 매일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 남편은 아주 쉽게 화를 내고 그랬다가는 갑자기 친절하게 아주 잘해준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많은 전쟁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 같다. 나는 평생 한번도 기쁜 적이 없었다⁶³.”

• 사례27: BDI 총점 28점을 보인 고티(Ghoti)는 40세 여성으로 남편은 시계 고치는 일을 한다. “나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쉽게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다른 사람과 잘 싸운다. 가슴이 뛰기도 하고 온몸이 아프다. 남편은 젊었을 땐 매우 친절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는 두 명의 부인이 더 있으며 한 명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한 명은 더 젊다. 두 아내가 매일 나를 괴롭혀서 매일 싸운다. 그렇게 매일 싸우게 되니 매우 우울해진다. 보통 싸우는 이유는 남편이 차별을 하기 때문이다. 남편이 다른 아내들에게만 선물을 사다 주면 나는 남편과 싸우고 그러다 보면 다른 아내들이 나에게 화를 내서 다시 그녀들과 싸우게 된다. 나는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늘 나를 모욕한다. 거기가 다른 부인의 딸이 내 아들과 결혼을 했다. 이제는 그 며느리라도 매일 싸운다. 날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한탄하며 운다⁶⁴.”

4. 사건 후 충격 척도 (Impact Event Scale-Revised)

〈표 IV-3〉은 사건 후 충격 척도의 총점평균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자 중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상적 사건이 있다고 응답한 74명의 보고를 분석한 것이다. 응답자의 총점 평균은 66.28이며 총점이 60점 이상인 여성이 74%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충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개별 문항은 0~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개별 항목 중 평균이 3점 이상인 문항이 전체 문항의 절반인 11문항으로 나타났고 모든 문항이 2점(moderately) 이상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19번 문항인 신체화증상에 관한 질문에서는 심장이 뛰는 것과 땀을 흘리는 현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⁶²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February 2007

⁶³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February 2007

⁶⁴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January 2007

사건 후 충격 척도는 회피, 회상 침입, 과각성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회피 증상의 평균은 2.99이며 회상 침입은 2.98, 과각성은 2.92로 나타났다.

〈표 IV-3. IES-R 총점 평균〉

총점	빈도(n=74)	퍼센트(%)
1~20	5	6.8
21~40	2	2.7
41~60	12	16.2
61~80	37	50.0
81~88	18	24.3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중 59%가 현재 충격적 사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충격적 사건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체로 가족 또는 친지 등 타인과 관련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62.3%가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 질병 또는 부상을 가장 큰 충격적 사건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중 전쟁으로 인한 사건이 23%로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폭탄 폭발로 인한 사고가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화재장면 목격, 폭발 장면 목격, 가족의 투옥, 유산 등이 있었으며 '10년 전의 결혼'이라고 응답한 여성도 있었다.

- 사례28: 20세인 슈구파(Shugufa)는 몇 해 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부상당해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버텨내지 못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파키스탄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온 경험이 있다. 의사는 슈구파에게 절대 심각한 사고나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 뉴스를 보지 말라고 했고 그녀는 지금까지 그 말에 따랐으며 가족들도 그녀에게 심각한 사고 얘기는 하지 않았다⁶⁵. 그런데 조사기간 중 그녀는 친구들이 탈레반 동영상을 보는 동안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탈레반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며 공황상태에 빠졌다.

〈표 IV-4. 충격적 사건〉

분류	응답	빈도	퍼센트(%)
충격적 사건	있다	74	59.2

⁶⁵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November 2006

경험 여부(n=125)	없다	51	40.8
충격적 사건 종류 (n=74)	전쟁으로 인한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	17	23.0
	가족, 친지 살해당함	5	6.8
	질병으로 가족, 친지 죽음	6	8.1
	기타 원인으로 인한 가족, 친지의 죽음	7	9.5
	가족, 친지의 질병 또는 부상	11	14.9
	가정 폭력	3	4.1
	강탈, 도난	4	5.4
	생존의 위협(방치)	5	6.8
	전쟁상황 자체	3	4.1
	기타	13	17.6

• 사례29: 60세인 간다굴(Gandigul)은 IES-R에서 76점을 보였다. 그녀는 삶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을 묻는 질문에서 얼마 전 죽은 아들 얘기를 꺼내며 인터뷰 내내 계속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35세로 5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다. “아들은 돈이 아주 많고 시골에 자기 소유의 정원이 있었다. 45일 전 친구들과 그 정원에 갔다가 죽은 채 발견됐다. 친구는 묶여 있었고 아들만 죽었는데 경찰에서도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누가 왜 죽였는지 전혀 모른다. 누군가 칼로 아들의 목을 그어서 죽였는데 이마와 눈, 턱, 얼굴, 배 등 온몸이 칼에 찔려 있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돈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아들은 절대 싸우지도 않고 늘 불쌍한 사람을 돕는 좋은 사람이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내가 자고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4일 밤낮을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마셨다. 아들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프고 숨을 잘 쉴 수 없다. 손자가 울면 나도 같이 운다. 나는 원래 담배를 피웠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피우고 있다. 밤에는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다.

지금 나에게서는 온통 죽은 아들 생각뿐이다. 아들 때문에 다른 모든 걸 잊어버린 것 같다. 그 아들은 매일 집에 늦게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면 곧 들어간다고 말해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었다. 나는 지금도 밤에 계속 아들을 기다린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들 생각이 나고 너무 보고 싶다. 사람들이 모여서 아들 얘기를 하니깐 더욱 생각이 나고 갈수록 슬픔이 더해진다. 나는 이런 삶은 원하지 않는다. 내 삶은 아들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엔 알라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알라에게 달렸다. 알라가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에게엔 내세가 있고 알라가 그 사람들을 벌할 것이다. 무슬림들은 돈이 있으면 누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데 얼마 전 아들을 위해 양을 두 마리 제물로 드렸다⁶⁶.

• 사례30: 앞서 소개한 사례24의 하지자(40세)는 IES-R에서 84점을 보였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가족들이 죽은 얘기를 했다. 15년 전 여동생이 호롱불 폭발로 화상을 입어 9일을 살다가 죽었다. 둘째 오빠 얘기를 하며 울기 시작했는데 10년 전 오빠가 없어져서 찾으려 했지만 탈레반이 죽인 것이었다고 한다. 오빠 친구가 탈레반이었는데(자기들도 그 사람이 탈레반인 것을 알았다고 함) 오빠에게 재산이 많으니 자기에게 좀 달라고 했는데 오빠가 거절하자 총으로 쏘서 죽였다고 한다. 그 친구는 경찰에 잡혀갔었지만 실수로 죽인 것이라고 했다. 큰 오빠도 죽었는데 25년 전 군인이었던 오빠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전쟁이 격렬해서 의사에게 데려가지 못한 채 죽었다고 한다. 엄마는 오빠가 죽고 곧 죽었다. 하지자는 얼마 전 언니네 이웃의 남자 아이가 병으로 죽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거나 들으면 가족들의 죽음이 생각 난다고 했다. 또 누가 죽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은 모든 곳에 늘 있는 일이니 자신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밤에 잘 때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 심장이 뛰고 식은 땀이 나고 구역질도 난다고 한다⁶⁷.

• 사례31: 아르조(Arzo, 30)는 IES-R 총점 73점을 보이고 있다. “12년 전이다. 남동생이 길에서 폭탄을 보고 그것이 폭탄인 줄 모른 채 친구와 주워서 놀다가 그것이 터져 죽었다. 머리와 손만 남고 나머지 시체는 찾을 수 없었다⁶⁸.”

IES-R 65점을 보인 샤리파(Sharifa, 17)는 작년에 오빠가 시장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폭탄이 터져서 목숨을 잃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했다.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머리와 가슴이 심하게 손상된 오빠의 시체를 가져온 것이었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의식을 찾은 후 오빠의 시체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 온 가족이 울었다. 나는 지금도 늘 오빠 생각이 나서 잊을 수가 없다⁶⁹.”

• 사례32: 자르미나(Zarina, 40)는 IES-R 66점을 보였다. “10년 전쯤이다. 무자헤딘 시절에 우리는 시내에 살았었다. 그 때 누군가 우리 집에 폭탄을 두 개 던져서 집에 와있던 아버지와 가족들이 부상을 입었고 남동생은 목숨을 잃었다. 남동생은 폭발로 복부가 갈라졌고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다. 온통 피투성이였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날 때면

⁶⁶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March 2007

⁶⁷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February 2007

⁶⁸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February 2007

⁶⁹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February 2007

가슴이 뛰는데 플라네이⁷⁰가 흔들릴 정도다⁷¹.”

• 사례33: 파르히마(Farhima, 35), “러시아 통치시절 결혼 직후 남편이 군인으로 징집되어갔었다. 2년 동안이나 남편은 밤에 나가 일을 하고 아침이 되면 돌아 왔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이란으로 갔기 때문에 나는 집에 완전 혼자 있어야만 했다. 물론 이웃들이 함께 있어 주기도 했고 잘 대해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낼 수는 있었지만 그 때의 기억을 절대 잊을 수 없다.” 그녀는 IES-R에서 11점의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그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뛰고 땀을 흘리고 숨을 잘 쉬지 못하고 구역질도 난다고 말했다⁷².

5.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조사의 목적은 아프간 여성들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조사의 구조화된 인터뷰를 마친 후 두 가지 추가질문을 실시하였다. 질문은 그들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것으로 첫 번째는 “당신을 가장 슬프거나 화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며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마음의 상태를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다. 자신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자기 인지를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응답개수의 제한 없이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아래 <표 IV-5>는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을 7가지로 분류하여 각 요인 별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퍼센트는 전체 응답자 중 해당 요소를 언급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의 정서 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가족 또는 친구와 얘기하는 것’ 이고, 두 번째 ‘일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낭가하르(Nangarhar) 지역에서 남녀인구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종전의 연구에서는 슬픔, 걱정 또는 긴장 상태에 도움이 되는 정서적 지지의 주된 공급원은 첫째 ‘알라’ , 두 번째 ‘직계 가족’ 으로 보고된 점⁷³을 생각할 때 종교의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두 조사에서 동일하게 보고된 바에 의하면 가족은 이들의 정서 회복의 주된 자원으로 역할하고 있다. 또

⁷⁰ 아랍권의 이슬람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이나 가슴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쓰는 가라개(쓰개)를 말한다. 스카프나 두건과 비슷하며, 모양에 따라 얼굴과 가슴까지 가리는 것과 얼굴을 드러내는 것 두 가지로 구분된다.

⁷¹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December 2006

⁷²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interview, December 2006

⁷³ Willem F. Scholte et al., “Mental Health Symptoms Following War and Repression in Eastern Afghanistan”, Th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92, No. 5, (2004): 590 < <http://jama.ama-assn.org/cgi/content/full/292/5/585> >

다른 의미 있는 결과는 122명 중 8명의 여성이 어떤 노력을 해도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는 6.6%의 여성이 현재 심리적 극복 방안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을 슬프게 만들거나 화나게 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누군가의 죽음이나 사고 등 나쁜 소식을 듣는 것 또한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별히 자신이 존중 받지 못할 때라고 대답한 9명의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이 아닌 외부적 문제 또는 타인으로 인한 요인을 언급하고 있다. 가족의 연대가 매우 강한 이슬람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은 대화 가운데 가족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위의 결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하게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 IV-5.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류	요인	빈도	퍼센트(%)
마음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요소 (n=122)	일	27	22.1
	코란 읽기, 기도	18	14.8
	스스로 바쁘게 만들기	6	4.9
	가족 또는 친구와 얘기	40	32.8
	TV 시청	10	8.2
	공부	12	9.8
	가족과 함께 있기	11	9.0
	기타	23	18.9
슬프거나 화나게 하는 요소 (n=119)	나쁜 뉴스를 들을 때	24	20.2
	국가 상화(폭발 등)	14	11.8
	싸움, 또는 싸움 목격	14	11.8
	경제적 문제	27	22.7
	집안 문제(아이문제 등)	16	13.4
	존중 받지 못할 때	9	7.6
	누가 이쁠 때	15	12.6
	기타	18	15.1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프간 칸다하르 지역 파슈툰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기술적 자료인 본 보고서는 향후 아프간 여성들의 정신건강의 회복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더 나아가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의 개입전략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위에 제시한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바탕으로 더 심화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VI. 결론

본 조사를 위해 만난 많은 여성들이 부르키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하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였다. 이는 세계의 언론이 비난하며 우려했던 바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바탕으로 한 판단과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가 개선해야 한다 주장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위의 결과 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프간 칸다하르 파슈툰 여성들이 현재 그들의 삶의 영역들 즉, 건강, 대인관계, 안전, 역할 수행 등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일반적인 삶에 대하여 20%가 강한 불만족(unhappy, terrible)을, 51%가 강한 만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정서적 건강에 대하여 44%가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대인관계에 있어 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과 현재 누리고 있는 우정의 정도에 대해서 각각 60%, 70%가 강한 만족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안전에 관하여는 68%가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학대가 강한 지역으로 문제시되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의 보수적 종족 파슈툰 여성들은 예상과 달리 많은 영역에서 그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쟁과 가난, 억압이 성행했고 또한 여전히 많은 위협과 학대가 자행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삶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지닌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성급하게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다만 우리는 현재 그들이 만족하고 있는 삶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잃어버린 영역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 응한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환경, 제도, 관습 가운데 순응하여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진 전쟁, 학대, 소외 등을 겪으며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보여지는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다. 벡 우울 척도 조사 결과 31.2%가 가벼운 우울 상태를, 24.8%가 중한 우울 상태를 보고하였으며 15.2%의 응답자가 심한 우울 상태를 보고하고 있다. 외상 후 회피, 회상 침입, 과각성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사건 충격 척도(IES-R)에서는 74%의 여성이 총점 88점 중 60점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심리 장애 증상들에 대한 원인 규명과 극복 방안, 개입 전략에 대한 심화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서 그들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가족 또는 친구와 얘기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그들을 슬프게 만들거나 화나게 하는 요인은 첫째로 ‘경제적 문제’, 다음으로 ‘나쁜 뉴스를 듣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한 정서 상태에 영향을 주는 위의 요소들은 앞으로 이어질 후속 연구에 좋은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본 조사팀은 6개월간의 현장조사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주 파슈툰 여성 12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령, 교육수준, 경제 수준 등에서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별히 그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사전조사를 통해 예측한 바와 상당부분 다르게 보고되었다. 열악한 환경과 제도 속에서도 순응하여 살아가는 그들은 삶의 많은 영역에서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을 보이는 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며 사례조사를 통하여 그 증상의 형태와 원인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술적 내용을 담은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개입전략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근거지로 가장 많은 억압을 받았던 칸다하르, 특별히 강한 이슬람 문화와 탈레반의 칙령 아래 소외 받고 학대 받았던 여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 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한다.

〈참고문헌〉

Amnesty International, “Afghanistan: Women still under attack – a systematic failure to protect”, 30 May 2005

<http://www.web.amnesty.org>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7* Afghanistan

<http://www.amnesty.org>

Anthony Feinstein, Ph.D., M.D. John Owen, M.A. Nancy Blair, M.A. “A Hazardous Profession: War, Journalists, and Psychopathology”: Committee on Gulf War and Health, “Gulf War and Health: Volume 4. Health Effects of Serving in the Gulf War (2006)” 2006 September 12

Carol J Riphenburg, “Post-Taliban Afghanistan: Changed Outlook for Women?”, May/June, 2004

<http://proquest.umi.com>

C. R. Snyder et al,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0, No.4, (1991): 570

Human Rights Watch, “Human Denied: Systematic Violation of Women’ s Rights in Afghanistan” , October 2001, p13

<http://www.hrw.org>

Human Rights Watch, “Taking Cover: Women in Post-Taliban Afghanistan” , May 2002, p2

<http://hrw.org>

Kenneth E. Miller et al., “The Afghan Symptom Checklist: A culturally Grounded Approach to Mental Health Assessment in a Conflict Zone” ,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76, No. 4, (2006): p. 427

Willem F. Scholte et al., “Mental Health Symptoms Following War and Repression in Eastern Afghanistan” , *Th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92, No. 5, (2004): pp589-590
<http://jama.ama-assn.org>

“AFGHANISTAN: Inadequate care for trauma victims” , IRIN press, 13 February 2007,
<http://www.irinnews.org>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 June 2007

<https://www.cia.gov>

Wikipedia, *Beck Depression Inventory*, 21 July 2007

<http://en.wikipedia.org>

Victims’ Web, *Impact of Event Scale - Revised (IES-R)*, 21 July 2007

<http://www.swin.edu.au>